

제주도기행⁷⁾

*원문 그대로 옮김.

1948년 8월 28일

오전 10시 제주도 견학차 김제를 출발하여 전주경찰청 무덕전에 모여서 중식을 마치고 GMC 화물차 1대를 빌려 타고 이리에 도착하여 마침 오후 5시 특별열차가 서울서부터 7백여 명의 승객을 싣고 왔으므로 우리 일행 50명도 일원이 되어 목포 도착하니 오후 12시였다. 시내 일출여관에 여장을 풀고 1숙하다.

8월 29일

오전 11시 목포항에 나와 춘광환을 타고 유달산을 등지고 출발하니 다도해의 종점인 추자도까지 풍파가 없었으나 추자도를 지내니 풍파가 심하여 해상의 풍경을 못보고 제주해협에 드리스니 오후 6시 한라산이 보이기 시작하여 약 5시간 후 제주항에 입항 적선정에 1숙.

8월 30일

오전 11시 제주도 국민학교정에 일동 9백명이 모여서 대대장의 훈시를 듣고 해산하여 숙소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5시반 제주감찰청의 안내를 받아 오후 8시 제주읍 도두리에서 선착부대와 동숙.

8월 31일

제주도 첫 풍경에 놀랐다. 오후 5시 전북도 출신 다시 분산하여 우리 일행 20명(김가영 박영구 조재호 송용호 안승헌 황기남 최주열 정갑룡 이복수 이복수 이근우 김용석)은 제주읍 오등리로 가서 철도관구원과 교대하여 주위 시찰.

7) 금융조합 서류양식 이면지에 자필로 작성한 문서임. 응원경찰대 소속 경찰 간부의 일기로 추정됨.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에 따르면, “1948년 8월 29일 전국 각 경찰관구에서 차출된 응원경찰대 800명이 제주도에 도착했다”고 하는데(『朝鮮中央日報』, 1948년 9월 1일), 위 일기 1948년 8월 30일자 “오전 11시 제주도 초등학교 교정에 일동 9백 명이 모여서 대대장의 훈시를 듣고”라는 내용과 일치함.

9월 3일

최주열 정갑룡 이복수 3인 연평⁸⁾으로 분산. 몹시 쓸쓸하다.

9월 4일

오전 4시부터 제주도 특유의 폭풍우가 시작함.

9월 17일(음 8월 15일)

중추절이다. 이동해야 노형리로 오니 한라산 일대는 봉화로 꽃밭이다. 유명한 왔사대들이다.

9월 18일

부락을 도라보니 남자는 없고 돌담에는 빈틈없이 빠라다.

9월 26일

오전 1시 야간 출장하여 관계자와 동행. 오전 5시 귀사(歸舍).

9월 28일(음 8월 26일)

이동이 있어서 제주읍에서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 읍을 떠나 동으로 이동. 오후 7시 북제주군(남제주군의 오기) 표선면 성읍리에 와서 주둔.

9월 30일

서귀포에 폭도 내습. 전남인 2명 피살.

10월 6일

국방경비대 제주도 일제 검색.⁹⁾ 오후 8시 우리들에게 도라오라는 통지가 오다.

8) 영평 혹은 연동의 오기로 보임.

9) 제주도 사태 진압의 총괄 지휘권을 경찰에서 군으로 넘긴 조치로 보임. 이에 따라 제주에 파견되었던 응원경찰대 7백 명이 10월 8일 철수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10월 11일 광주 제5여단장 김상겸 대령을 사령관으로 하는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창설됨으로써 군이 주도적으로 제주도 진압작전에 나서게 됨. 1948년 4월 5일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조직된 경찰 조직인 '제주비상경비사령부'는 10월 11일 군 조직인 '제주도경비사령부'로 대체되었음. 제주도 강경진압작전은 10월 들어 전격적으로 단행된 제주경찰감찰청장의 교체와 제주도경비사령부의 창설로 더 구체화됨. 중앙정부는 제주도 출신으로 그동안 온건책을 지향해 온 김봉호 경찰청장을 10월 5일자로 사퇴시키고 그 후임에 평남 출신인 경무부 공안과장 홍순봉(洪淳鳳)을 발령했음. 제주도경비사령부 사령관에는 광주주둔 제5여단장 김상겸(金相謙) 대령이 임명됐음. 부사령관에는 제9연대장인 송요찬(宋堯讚) 소령을 임명했음. 진압사령관이 연대장급에서 여단장급으로 격상된 것임. 제주도경비사령부에는 제9연대와 부산에서 온 제5연대 1개 대대, 대구에서 온 제6연대 1개 대대, 해군함정(해군 소령 최용남 부대), 제주경찰대(홍순봉 제주경찰청장)를 통합 지휘하는 권한이 부여되었음. 경비대총사령부는 또한 제5여단 예하 부대인 여수 주둔 제14연대 1개 대대를 제주도에 증파하도록 명령했음.

10월 7일(음 9월 5일)

오전6시 성읍을 떠나 오후 2시 제주읍 착. 왕성관 숙박.

10월 8일

오전 7시 제주항에 모이니 일행이 7백명이다. 영등포환에 몸을 싣코 오후 5시 목포 착. 일출여관에 투숙.

10월 9일

오전 9시 서부 해방자호로 김제를 거쳐 일로 귀향에.
일지

(1948년) 10월 20일

여수사건 발생되어 오후 3시 오라는 소식. 백산을 떠나 전주를 거쳐 남원에 오후 9시 도착.

10월 21일

전남북 도계서 야숙하고 주먹밥 먹다.

10월 22일

울치¹⁰⁾을 떠나 남원에 와서 투숙.

10월 23일

남원을 떠나 오후 4시 광주 착. 광주 출발 오후 10시 화순을 거쳐 동북에 와서 산상에 투숙.

10월 24일

동북을 떠나 오전 12시 순천군 주암면 착하니 행정관리 1명도 없고 오산리 살인사건 발생.

10월 25일

주암 출발 오후 8시 화순 남원에 와서 야영.

10) 전북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10월 26일

남면에 화순으로 와서 기동순찰.

10월 27일

보성으로 이동 도중 남면서 자동차 고장으로 1숙.

10월 28일

오전 9시 남면을 출발 오전 12시 문덕 경유 오후 1시 복내 착.

10월 29일

미력 착. 서울인과 합함.

10월 30일

백형복 귀도. 홍씨 착

11월 1일

우리 2분대 노동으로 분견됨

11월 1일

우리 2분대 노동으로 분견됨.

11월 6일

문덕 복내에 반란군 내습. 정읍인 2명과 순창인 1명 피살되야 보성 본부(署)에 집결 철야.

11월 7일

오전 6시 열차로 화순에 일부 직원 스트라이크를 개시. 광주로 와서 있다가 도라오라는 애원으로 보성으로 도라와 여관에서 1숙하려다 오후 1시 화순부대와 합하여 김천으로 이동.

11월 8일

오전 3시 부대장 출영차 보성으로 와서 능치을 갔다가 도라와서 무?행 도로에 근무

11월 9일

오후 3시 홍씨와 같이 김천 귀임.

11월 10일

전북부대 중 김천부대가 우리로 지정되어 지대가 위험함으로 자동차상에서 야숙.

11월 11일

김천 후록에 토굴을 파고 거기서 야숙하는데 사망에서 총성일 들리다. 후일 보도에 이하면 장흥 도로와 보성 도로을 절단.

11월 16일

오후 7시 이?남씨와 홍성원 군 위문차 내방.

11월 23일

오전 11시 김천 출발(어업조합 발동선) 오전 고흥군 도양지서에서 조식을 마치고 다시 소선으로 산록도로 와서 단장 김상태의 안내로 전도 구경 후 득량. 도?사으로 도라서 오후 2시 ? 김천 착.

11월 25일

환향하게 되어 보성에서 오후 10시 광주 착 1숙.

11월 26일

광주 경찰청에서 치사을 듣고 광주에서 송정리서 급행차로 김제서 열차로 ??에서 5일간 편안 휴?

尾

1951년 5월 7일 1명 ??? ??

* ?표시는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을 표시함.

- 1945년 미해군보고서는 마이크로 필름형태로 보관되어 있으며, 제주를 비롯하여 한국 전체 사회의 산업, 인구, 사회 등에 대한 기록이 있음.